

전국 도심서 날뛰는 멧돼지들...왜?

시도 때도 없이 출몰...시민 불안감 증폭

“기후변화 개체 수 증가...서식지는 좁아져”

멧돼지가 사람과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전국 도심 곳곳에서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28일 오전 4시33분쯤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멧돼지 5마리가 집단으로 출몰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은 마취총을 맞고 도달한 멧돼지를 잡기 위해 일대 수색을 벌였다.

달아난 멧돼지들은 오전 5시2분 동래구 명륜동 한 골목에서 한 마리, 오전 5시19분 인근 폐가 마당에서 또 다른 한마리가 경찰이 손총에 사살됐다. 이어 오전 6시4분과 오전 6시56분쯤 각각 다른 장소에서 멧돼지 두 마리가 잇따라 포획됐다.

하지만 포획된 멧돼지 4마리(40kg 3마리, 30kg 1마리)의 어미 멧돼지(100kg 이상)는 현재 포획되지 않아 소방당국 등이 계속 수색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멧돼지의 도심 출몰은 계절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1시쯤 광주 서구 매월동 서광주역 인근 제순환도로에서도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차 등으로 멧돼지를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실탄 10발을 쏜 후에야 멧돼지를 사살할 수 있었다. 포획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멧돼지 공격에 다치기도 했다.

앞서 23일 오전 0시43분쯤 경부고속도로 진입로에서 BMW 승용차가 멧돼지 2마리를 충격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승용차 앞 범퍼가 일부 파손됐고 차에 부딪힌 멧돼지 한 마리는 현장에서 죽고 한 마리는 달아났다.

진입로가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발생했다면 대형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

광주에 사는 송모씨(53)는 “농가가 밀집한 시골도 아니고 도심 한가운데에 멧돼지가 출몰한다는 뉴스를 여러차례 접하다 보니 당장 내 눈앞에 멧돼지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된다. 특히 멧돼지 출몰시 대처 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 걱정되기도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멧돼지 도심 출몰은 해마다 반복됐다. 하지만 최근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멧돼지가 도심으로 내려오는 빈도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따뜻한 기후와 낮은 적설량으로 멧돼지 생존율이 높아졌고 인간의 개발행위로 야생동물 서식지가 줄어들어 멧돼지 도심 출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우신 서울대 산림과학부 야생동물학 교수는 “도심에 멧돼지 출몰이 늘어나는 이유는 개체 수가 늘고 행동권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멧돼지 개체 수가 늘면 출몰 횟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

다. 멧돼지는 보통 4, 5월에 태어나 그해 겨울에 약 50%가 죽는데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적설량도 줄면서 생존율이 80%까지 늘어난 것이 개체 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개체군이 인간의 개발(산림 훼손, 골프장 개발 등)에 의해 자기 서식지역이 줄어들어 도심으로 행동권을 확대한 것도 이유”라며 “서식지가 줄어들어 먹이를 찾아 행동반경을 넓힐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단순히 기후변화와 인간의 개발이 멧돼지 출몰의 이유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야생보다 잘 가꾼 농작물을 맛본 후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자주 내려오는 것도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 발표한 야생동물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멧돼지의 연도별 서식 밀도는 지난 5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에 100헥타르(ha)당 멧돼

지 4.3마리가 서식하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100ha당 5.2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00ha당 2014년 4.3마리, 2015년 5.0마리, 2016년 4.9마리, 2017년 5.6마리, 2018년 5.2마리로 집계됐다.

온난한 기후로 생존율이 높아진 멧돼지들이 개체 수가 증가했는데 오히려 인간의 산림 개발 등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 서식밀도가 증가한 것이다.

멧돼지 한 마리당 서식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어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행동반경을 넓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에는 멧돼지의 먹이 섭취가 늘고 짝짓기를 시작하는 가을과 초겨울뿐만 아니라 봄과 여름에도 출몰 횟수가 증가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멧돼지를 직접 마주했을 때 큰소리를 지르면 오히려 멧돼지가 흥분할 수 있으니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봉사로 사랑의 온기를 전해요 고려아연 임직원들과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봉사단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노원구 회랑촌에서 연탄 나눔 봉사를 하고 있다.

여수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

여수해양경찰서는 11월28일까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박 내에서 불평 등한 상하 관계를 이용해 이뤄지는 성희롱과 폭행·갑질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다.

단속대상은 △도선 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약취유인·갑금·폭행행위 △선박 내 성추행, 하선 요구 묵살과 강제승선 등 갑질 행위 △무허가 직업소개소 △속박료, 율락알선, 술값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갈취하는 행위 등이

해경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나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의 경우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여수해경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을 벌여 선원과 승선 실습생 폭행 등 인권침해 3건,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해남서 전세버스트랙터 추돌 1명 중상

29일 오전 8시41분쯤 해남군 해남읍 한 터널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씨(52)가 몰던 32인승 전세버스가 앞서가던 트랙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 B씨(41)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전세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5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이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전세버스에는 진도에서 부산으로 견학을 나선 상인회 회원 20여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40억대 보이스포싱 조직원 12명 영장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40억원대 규모의 보이스포싱 범행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포싱 조직원 중 상당체인 A씨(35)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과 태국 등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저렴하게 대금을 해주겠다고 속여 100여명에게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이 있던 조직은 총책, 상담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돼 있다.

A씨 등은 중국의 사무실에서 국내에 있는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금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수십만원의 받는 등 각종 수수료를 만들어 수천만원까지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낸 수수료 등 돈이 입금되면 은행 등에서 인출해 중국에 위치한 사무실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관련 수사를 벌여 최근까지 수십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보이스포싱 조직 총책 등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늦은 밤 들개 떼지어 ‘출몰’ 전남대생들 공포

전남대학교에 들개가 출몰하면서 학생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29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전남대 광주캠퍼스에서 들개 2~3마리씩 총 6마리가 학교와 주변을 누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 7월 들개 2~3마리가 무리 지어 떠돌아다닌다는 첫 민원에 이어 같은 내용으로 민원이 3차례 더 접수됐다.

대학 시험 기간이었던 이달 초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귀가하던 학생들이 들개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피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교 내에서 들개들이 길고양이를 죽이는 것이 목격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구청은 전남대에 포획틀을 설치할 예정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야생동물 출몰 민원이 이어지며 포획을 설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차안서 치고받은 연인 입건...음주운전도 들통

광주 서부경찰서는 29일 여자친구를 때린 후 음주운전을 한 혐의(폭행 등)로 A씨(44)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남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른 B씨(38·여)도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5시쯤 광주 서구 내방동 한 아파트 앞 노상에 세워진 A씨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 서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차에서 내리자 그대로 자신의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고 B씨는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B씨의 진술을 듣는 사이 A씨가 다시 현장에 돌아왔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술냄새가 나 결국 음주사실까지 틀렸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